# “훗날 이 인연으로 진리 불꽃 피워오르리”

## 회주 자승 스님, 인도 주민에게 잇달아 대기설법

### 발길 닿는 곳마다 佛緣 맺기
### “부처님 나라, 佛祖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왔습니다”
### 韓스님 모습에 인도인 ‘환희심’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불교중흥을 위해 강조해 온 ‘불교 인연(佛緣) 맺기’가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도 이어졌다. 연일 신기한 눈으로 저녁예불을 바라보던 인도주민들은 현지통역가의 예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님께 함께 예를 올렸고, 이를 지켜본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인연이 훗날 진리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라고 축원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9일 엄어와 마을에서 저녁예불을 올렸다.

마을 주민들은 순례단이 묵는 숙영지 건물에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보리수를 장엄했다. 숙영지 진입로에는 정성을 모아 흰천과 푸른천으로 두르고, 텐트가 쳐질 공간에는 카페트를 깔아 흙먼지가 순례단 숙영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런 엄어와 마을주민들은 저녁예불에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예불의식이 진행되는 숙영지 바깥에는 마을주민 500여 명이 운집해 장관을 이뤘다. 부다가야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도 소식을 듣고 예불에 참석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법회 후에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대규모로 함께 예불의식에 동참한 인도주민들의 마음에 불연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승 스님은 “이곳은 부처님 나라, 진리의 땅이며 부처님 후손인 여러분을 만나러 저희들이 여기에 왔다”며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훗날 3000년 전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절로 진리의 불꽃을 피워올릴 날이 꼭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통역가의 입을 통해 힌두어로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의식마다 함께 합장하고 동참했던 주민들은 자승 스님의 말에 박수를 쳤다.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의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43일간 계속 걸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린 이러한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꿈이 부처님 가피로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이날 순례 공덕을 인도주민들에게 회향했다.

2월 20일에도 자승 스님은 카파시아 마을 주민들에게 대기설법했다. 스님은 이날 저녁예불 후 어린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 2월 19일 법문과 달리 보다 쉬운 용어로 설법했다. 그만큼 쉽게 알아들은 인도주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회주 자승 스님이 2월 20일 설법 이후 인도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쉬운 용어로 축원까지 한 터라 주민들이 스님을 대하는 모습이 한층 친근해 보인다.



2월 19일 저녁예불 후 아쇼카클럽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게 부처님상과 아쇼카왕석주기념물을 전달했다.



한국에서 조성해 온 부처님께 인도 현지 불자들이 꽃 공양을 올렸다.

“우리가 합장한 이유는 순례하는 대중들과 여러분이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게는 이 자리에 교감을 갖는 것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과 인도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교감을 함께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승 스님은 이번 순례가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의 교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먼저 ‘친구’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라는 말을 통해 출재가자가 함께 구성된 순례단이 차별없는 수행결사체임도 밝혔다.

인도인들에게 성스러운 존재인 수행자 스님이 ‘친구’라고 하자 무심코 스님의 말을 듣던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말만큼 말이 통하지 않는 이에게 쉬우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적합한 말이 있었을까. 이날 순례하는 스님의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수행자에게 공경을 표하는 이들에게 이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했다. 부다가야 주변 지역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서려 있지만 불연이 닿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승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자연스럽게 합장했다.

자승 스님의 설법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인도주민들과 부처님의 인연, 그리고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축원으로 이어졌다.

“부처님은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인 중의 성인,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이곳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랬을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치를 알린 스님의 설법에 인도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렸다. 순례단의 방문과 회주 스님의 설법으로 불연을 맺게 된 주민들은 부처님 광명이 내리는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기원했다.

# 상월결사 순례 대중 ‘불교중흥’ 원력 한마음

### 2월 20일 사부대중 기자간담회
### 印불교 발아, 韓불교 변화 계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공통된 원력이 확인됐다. 바로 ‘불교중흥’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20일 숙영지인 카파시아 마을 학교에서 순례단 사부대중을 대표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순례단원으로 전 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비구니 스님조인 6조 조장 묘수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성계순 불자가 사부대중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순례단 대중을 대표해 인도에서 확인한 불교 중흥의 희망이 한국에서도 다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2월 20일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을 대표해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여정이 한국과 인도 양국의 불교중흥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인도 순례는 ‘환희’의 여정**

비구 스님들을 대표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인도 순례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환희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순례단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특히 스님은 “순례를 하면서 연도에 인도분들이 한국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에 꽃공양을 올리고 동참하는 것을 보았다. 결사정신이 인도에도 퍼져 불교가 새롭게 꽃피우는 것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묘수 스님은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에 감사를 표했다. 묘수 스님은 “이 여정에 비구니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순례를 하면서 누구나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로 가면서 이 인도 주민들에게도 불심이 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바새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이겨내고 있다. 가는 곳곳마다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으며 환희심이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바이를 대표해 성계순 불자는 “인도순례를 준비하며 정한 목표가 인도에서는 바뀌었다. 작은 아이가 합장을 하는 것을 보며 불심을 느꼈다”며 “인도사람들에게 그동안 눌려있던 불성이 ‘순례’라는 계기로 다시 일어나는 것 같다.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환희심이 난다”고 했다.

**“한국불교 변화 계기 되길”**

범해 스님은 ‘줄탁동시’처럼 인도의 불교 중흥이 한국의 불교 중흥과 함께 협응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힌두교가 굳건한 인도에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렸다. K문화가 대세인 것처럼, 한국의 불교문화가 인도에 접목되고 활성화되면 상월결사의 불교중흥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순례에 앞서 종정 예하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씀하셨다. 불교가 대중 속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대중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갈 때 불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 3주차(2.23~3.1) 순례 일정은

## 영축산 지나 바이샬리로
## ‘순례’ 주제 국제세미나도

3주차에 접어든 순례단은 영축산을 지나 근본사리탑터가 있는 바이샬리로 나아가게 된다. 3주차에는 연계 행사가 예정돼 있다. 동국대는 2월 24일 인도 날란다대학과 함께 ‘순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에는 6개국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순례 의미 등을 되짚을 예정이며, 대회 이후에는 동국대와 날란다대학의 MOU도 체결된다.

2월 25일 영축산 여래향실에서는 영축산 기도법회 및 참배가 진행되며, 3월 1일에는 바이샬리 근본사리탑터에서 일일회향법회가 열린다.

바이샬리는 최초의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 장소로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 장소이기 때문에 불교와 자이나교 모두에게 성지로 인정받는 곳이다.


#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0-10 대행선연구원

**제6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한마음연구』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게재 완료 시)

**제5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4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3. 3. 18.(토) 13:30~18: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현장참석 및 유튜브 생중계)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 **좌장** :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 □ 제1주제 : 『논궤』(論軌, Vādavidhi)는 외도의 궤변인가? -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 -
    **발표** : 동광스님(동국대)
    **논평** : 1. 권서용(부산대) 2.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 □ 제2주제 :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 대행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 -
    **발표** : 김종진(동국대)
    **논평** : 1.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2. 하정수(동국대)
  - □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 : 진주지원
    **발표** : 혜근스님(진주지원장)
    **제목** : 혜근이 받든 대행선사의 가르침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